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9월 30일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한 3세대 피아노 음악회에서 NEC 백혜선 교수와 손민수 교수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사진 =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전상수리(Sangsuri Chun))

## “이런 음악회를 볼 수 있는 보스톤 삶이 감사했다”

〈연주후기〉 뜨거운 음악과 흐르는 세월, 감동과 행복의 피아노 음악회  
김정자, 백혜선, 손민수 교수와 변은선, 신창용 출연, 관중에 감동 선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지난 9월 30일(토) 저녁, 뉴잉글랜드음악원 (NEC)의 조던 홀에서 ‘보스톤의 가을 선물’ 같은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3세대에 거

친 6인의 한인 피아니스트가 두 명씩 짝을 지어 투 피아노 또는 포 핸드 곡을 연주하는 〈Piano Extravaganza: Three Generations of Pianists〉였다.

첫 번째 세대에 속하는 연주자는 1970년대 부터 각각 보스톤음악원(at Berklee)과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정자 교수와 변화경 교수다. 두 번째 세대에 속하는 연주자는 변 교수와 그의 남편인 러셀 셔먼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다가 모교로 돌아와 학생 ▶▶6면으로 계속

## 김총영사 취임 첫 개천절 행사, 200여명 참여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단기 4356년 개천절을 맞아 주보스톤총영사관은 2023년 개천절 리셉션을 보스톤 소재 BU 맷칼프 트러스티 센터(Metcalf Trustee Center)에서 10월 2일 개최했다.

김재휘 총영사가 부임해 개최한 첫번째 개천절 리셉션에는 트램 누엔, 바나 하워드, 도날드 워 매사추세츠 하원의원과 주정부 대표로 이본 하오 경제개발부 장관, 보스톤주재 외교관 그리고 한인사회 단체장, 한국전참전용사, 학생들 200여명이 참가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개천절은 4356년전 한국이 처음 건국된 날이며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 라고 설명하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70년 후인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매사추세츠와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한국의 놀랄만한 변신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윤대 ▶▶2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 보스턴대학 맷켈프 트러스티 센터에서 열린 개천절 리셉션에서 김재휘 총영사 내외가 건배를 하고 있다

# 김총영사 취임 첫 개천절 행사, 200여명 참여 성황

▶▶1면에 이어서

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매사추세츠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방문으로 많은 인상을 받았으며 또 다시 매사추세츠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했다.

이반 하오 경제개발부 장관은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하고 자신이 많은 한국 친구들이 있으며 잡채,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꼭 나열하며 한국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불시착을 보는 등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한국과 연관된 분야를 담당했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털어 냈다

하오 장관은 윤대통령과 주청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치인의 어려움, 경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아주 즐거운 자리였다고 말하고 윤대통령을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 아시안 코커스 소속 트램 누엔 의원도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며 K food를 나열했으며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의 명의로 10월 2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도날드 워 하원의원은 아들이 보스토칼리지에서 현재 며느리는 사라 남씨를 만나 현재는 한국계 가족이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 하원의원 제이크 오친클로스 의원을 대신해 디스트릭트 디렉터인 다나 헨슨씨는 한인사회의 후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더 많은 교류를 약속했다.

장영수 한인회장은 “한인회는 23세와 한인 1세대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 한인회를 소개했다.

이날 개천절 행사에서 김재휘 총영사는 91세의 한국전 참전용사 앤소니 디프리지오 씨에게 평화의사도 메달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전용사들은 디프리지오 씨에게 축하를 건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김총영사는 재외유공동포포상자로 선정된 한문수 라셀대학 교수이자 평통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며 축하했다.

한문수 평통회장의 건배사로 건배한 후 NEC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조연재, 테너 이일희씨의 가곡연주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김재휘 총영사는 개천절 행사이니만큼 한국 음식이 준비됐어야 하는데 BU 맷켈프 트러스티 센터와 조율이 안돼 준비를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총영사는 “외교관으로서 충분히 협상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 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editor@bostonkorea.com

## H마트 MA지역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종료임박

10월 29일 종료, H마트 카카오톡 채널에 영수증 찍어 전송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점 오픈을 기념해 실시한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가 곧 종료된다. 8월 4일부터 실시된 이 이벤트는 10월 29일 종료된다.

이번 이벤트는 H마트 MA 지역 카카오톡 채널을 채널을 친구 추가한 매사추세츠 지역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H Mart MA’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H마트 브루클라인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찍어 카카오톡 1:1 채팅창으로 보내면 된다.

이벤트기간내 구매 영수증을 보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H마트 \$50 상품권이 증정되며, 이벤트 당첨자는 2023년 11월 3일 H마트 홈페이지(www.hmart.com) 를 통해 발표된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주간 세일 소식은 물론 매장 정보(위치, 운영 시간), 스마트카드 혜택 등 H마트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센터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지역 H마트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H Mart MA’를 검색하여 추가 가능하다.

문의는 H마트 고객센터 서비스 센터 (877-427-7386)로 하면 된다.

서울설령탕  
SEOUL SEOLRY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e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뉴햄프셔 한인회, 뉴잉글랜드 소수민족 페스티벌 참가

### 2천5백여명 참가한 다민족 축제 포츠머스의 명물로 소수민족그룹과 공동으로 개최, 54개 단체 참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 이하 한인회)는 지난 9월24일 포츠머스(Portsmouth, NH)에서 소수민족그룹과 함께 뉴잉글랜드소수민족축제(New England BIPOC Festival)의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한국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함과 동시에 타민족의 문화도 체험하기 위하여 올해는 뉴잉글랜드 BIPOC(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그룹과 연계하여 이번 축제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천 5백명 이상이 참가한 성대한 축제가 되었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뉴햄프셔주의 또 하나의 축제인 다민족 축제" 로 자리 잡게 되었다.

흐린 날씨였지만 행사에는 아침 일찍부터 각 소수민족 및 이민자 그룹 소속 54개 단체들이 각각 이동식 당 및 기념품 판매대 등을 준비했다. 축제마당의 주 무대 앞인 중앙에

자리를 잡은 한인회는 태극기와 한국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중의 하나인 "과전" 을 판매했다. 개장시간인 12시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과전을 시식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한인회에 따르면 준비해 간 3개의 팬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예정된 마감시간인 5시가 될 때까지도 과전을 맛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다.

조은경 전 한인회장은 "사람들은 과전이 완성되는 걸 기다리면서 한인회에서 준비한 홍보물을 살펴 보기도 하고, 과전 만드는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재료에 대한 질문을 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완성된 과전을 맛보며 엄지 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주 맛있다는 반응들이었다." 고 전했다.

이날 중앙 무대에서는 하루 종일 각 이민자 그룹의 전통문화행사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인 부채춤 공연과 태권도 시범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민족의 단체 드럼 연

주, 흑인 랩퍼그룹의 공연, 등 여러 대륙의 공연예술이 펼쳐졌다.

포츠머스(Portsmouth)의 부시장 조애나 켈리(Joanna Kelley)의 사회로 시작된 축제에서 포츠머스의 디글랜 머카컨 (Deaglan McEachem) 시장(mayor)이 "포츠머스가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음" 을 강조했다. 머카컨 시장은 이날 처음 포츠머스를 방문한 대한민국 보스톤 총영사관의 김재휘 총영사에게 '문버팀쇠(door stopper)' 를 선물하면서 환영하였다.

뉴햄프셔 박선우 회장은 머카컨 시장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로 디자인된 넥타이를 답례로 증정하였다.

김재휘 총영사는 "BIPOC란 다양성이다. 그 다양성은 이 사회를 더욱 활력있고 친화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주축이다" 라고 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김재휘 총영사 내외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인회 부스에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총영사 부인은 과전을 함께 부치며 참가자들과 대화하며, 한국을 알렸다.

이날 소수민족축제에는 뉴햄프셔 주의 방송국, 신문사 등 주류 언론들



포츠머스의 머카컨 시장이 김재휘 총영사에게 친선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의 관심을 모았다. 채널9(ABC network)을 비롯하여, 맨체스터의 유니온리더(Union Leader)와 포츠머스 해럴드(Portsmouth Herald) 및 다수의 언론사를 소유한 '시코스트 미디어 그룹(SMG)' 등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했다.

비다 캔티나 멕시코 식당의 대형 주차장에서 시작한 행사는 올해는 인접한 건물과 은행 등의 주차장으로 확장하였다. 2500여명의 인파가 몰리자 내년에는 9월 29일 행사는 포츠머스 항구의 '프레스캣 공원

(Prescott Park)' 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선우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한인사회는 이 곳에 정착한 소수민족들과 친선을 도모할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를 좀더 이해하면서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소수민족의 권익신장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명실상부 이 행사는 뉴잉글랜드의 뜻깊은 '소수민족축제' 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 날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주지사 10억달러 감세안 서명, 나에게겐 어떤 혜택?

## 20년만에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세금 감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주지사는 4일 오후 10억달러 감세안에 서명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감세안은 매사추세츠 부모, 세입자, 시니어 등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체들도 감세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절약을 전달하는 감세안 공약을 마침내 성사하게 돼서 기쁘다. 이번 감세안은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을 담고 있다. 우리는 주 어느 곳에서든 현재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번 감면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본다.

일반 부모와 부양인들: 매사추세츠는 현재 13세 이하의 자녀와 65세 이상 및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 부양가족에 1인당 \$240의 텍스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크레딧은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감세안은 2023년 세금보고연도부터 자녀 및 부양가족당 인원 제한 없이 \$310로

바뀐다. 2024년 세금보고연도에는 \$440로 올라간다. 이는 매사추세츠 부모들은 2024 회계연도부터 자녀당 \$200을 더 받게 되며 3인 자녀 이상인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부부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즉 2025년 세금보고시)에는 총 \$1760의 크레딧을 받는다. 현행의 경우 \$480의 크레딧만 받았으나 2025년엔 \$1,280 추가 받게 된다.

**저소득 주민**  
연방정부의 근로자세금크레딧(EITC)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 현행 매사추세츠 EITC는 30%이지만 향후 40%로 올라간다.

자녀가 없는 독신인 경우 지난해 \$16,480 이하인 경우 \$56을 더 받게 된다. 그러나 2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49,399이하의 소득인 경우 \$600을 더 받게 된다.

**시니어(65세 이상):** 매사추세츠주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주민으로 렌트를 하거나 또는 프로퍼티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연 \$1,200의 크레딧을 주었으나 내년 세금보고에서부터는 \$2,400로 올라간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64,000, 부부의 경우 \$96,000이하이면 크레



지난 1월 모라 힐리 주지사(사진 왼쪽) 취임식에서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

딧이 적용됐다.

**렌트 거주자:** 매사추세츠에서 렌트를 하는 경우 매해 3,000까지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4,000로 늘렸다.

**상속자들:** 매사추세츠 유산세는 현행까지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부과했다. 현재는 이 한도를 2백만달러 이상으로 높였다. 이 법안은 2백만달러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절벽효과)을 덜기 위해 \$99,600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2백만 달러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적어도

\$99,600을 절약하게 된다.

**투자자들:** 주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팔아 이득을 본 경우 단기 자본소득세 12%를 부과했으나 이는 8.5%로 줄어든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이득이 남는 경우 장기자본소득세 5%를 부담하면 된다. 주식을 팔아 \$10,000의 이득을 봤다면 약 \$350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금액 단위가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한 진보적인 싱크탱크에 따르면 이 단기 자본소득세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부분이 상위 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hsb@bostonkorea.com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로드아일랜드 브라운대 왕혜숙 교수, 문화 포장 수상

## 한글날 맞아 두 명의 미주 한인,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0월 9일 제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로드아일랜드 동아시아학과 왕혜숙 교수가 문화포장을 수상한다. 또한 김현정 덴버 미술관 이사부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번에 한국 정부로부터 상을 받게 된 두 명은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이 한글발전과 문화교류 유공자로 추천한 인사들이다.

왕혜숙 교수는 1980년대 후반도 미하여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브라운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며 30년간 미국에서 한국어 교과서와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해 왔다.

이외에도 북미한국어교육학회(AATK) 회장, 뉴잉글랜드 대학 한국어교육자협회(NEACKE) 초대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체 활동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현정 큐레이터는 지난 17년간



사진 왼쪽은 왕혜숙 브라운대 동아시아학과 교수이며 오른쪽은 김현정 덴버 미술관 이사부장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한국 미술과 문화를 알리는 것에 주력해온 문화계 인물이다.

LACMA, SF 아시아 미술관, 덴버 미술관 등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7건의 한국 미술 대형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미술의 특수성과 정통성, 현대성을 미국 현지 사회에 알렸다. 특히 김현정 큐레이터는 미국에 있는 한국 주요 미술 문화재들이 한국으로 환수되는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한

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주 지역에는 아직도 묵묵히 한글의 보급과 확산에 애쓰시는 교육자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주 지역에서 개인 7명, 단체 3팀이 한글 유공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발전과 한미 문화교류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시, 보스톤에 문 여는 사업체 선정 20만달러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시가 다운타운 보스톤의 빈 매장에 들어서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선정, 최대 20만달러를 지원한다.

보스톤시는 팬데믹 후 복구비용의 일부를 배정해 경제 기회와 소수민족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제 2차 SPACE그랜트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올해 11월 10일이 마감이며 총 20사업체를 선정해 그랜트를 지급한다. 현재 보스톤시는 9백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

지난해 첫번째 SPACE그랜트 프로그램에 총 350개 업체가 지

원했으며 보스톤시는 이중 2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보스톤시의 테크니컬 보조와 더불어 3년 동안 총 2백80만달러의 그랜트 지원을 받게 된다.

보스톤시는 이번 그랜트 선정에 있어 보스톤 다운타운에 좀더 집중할 것이지만 보스톤 어느 지역이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boston.gov/economic-opportunity-and-inclusion/space-grants>  
bostonkorean@hotmail.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이런 음악회를 볼 수 있는 보스턴 삶이 감사했다”

▶▶1면에 이어서

들을 가르치고 있는 NEC의 백혜선 교수와 손민수 교수다. 그리고 현재 역시 NEC에서 각각 박사 과정과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실력 있는 연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음악가 변은선(Hannah Byun)과 신창용이 세 번째 세대로 참여하였다.

음악회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공연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곧 입장을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공연 30분 전에 연주장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1층부터 객석을 메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들로부터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중·장년과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관객들의 연령 층도 다양했다. 연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600여명이 자리한 객석이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일렁이는 것이 느껴졌다.

첫곡은 신창용씨와 백혜선 교수가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 381였다. 그동안 두 피아노 연주를 많이 들어보지 않아 나에게도 다소 생소한 음향이었는 데, 내 귀를 적응시키기에 아주 적절한 곡이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와 깔끔한 프레이징이 돋보였고 두 명의 연주자가 두 대의 피아노로 만들어 내는 하나의 음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파트를 탄탄하게 끌고 가는 자신감이 적절하게 교차함을 들을 수 있었다.

두번째 곡은 변은선씨와 손민수 교수가 연주한 드뷔시의 <Petite Suite>라는 포 핸드 곡이었다. 첫 곡과 달리 한 대의 피아노에 두 사람이



30일 피아노 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는 신창용씨와 백혜선 교수(사진 왼쪽), 변은선씨와 손민수 교수(사진 오른쪽 위), 연주 후 환호에 답례 인사를 하고 있는 연주자들(사진 아래) (사진 = 보스턴한미예술협회 전상수리(Sangsuri Chun))



나란히 앉아 연주를 하니 피아노 음색이 더욱 통일되게 들렸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시작되는 곡을 함께 물결을 타듯 호흡을 맞추어 연주하니 그 아름다움이 귀로도 눈으로도 느껴졌다. 악보를 한 장씩 넘기는 움직임마저도 우아했고, 음악의 일부임을 느꼈다.

세번째 곡은 미국 작곡가인 아론 코플란드가 멕시코 여행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오케스트라 교향시 <엘 살롱 멕시코>를 레너드 번스타인이 두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편곡한 작품이었다. 김경자 교수는 이날 연주자들 중 가장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팔을 드러낸 검은 연주복과 폭이 넓은 빨간 벨트, 흐트러지지 않은 곧은 자세와 백발

이 단번에 눈길을 끌었다. 평생을 피아노에 바쳐온 노교수의 팔에서는 강렬한 톤이 뿜어져 나왔고 온몸으로 리듬을 느끼며 건반을 치는 그녀의 모습에 관객들은 감동과 존경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함께 연주한 백혜선 교수는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호흡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만들어 나갔다.

큰 박수와 환호 속에 1부가 끝나고 잠시의 휴식 후 2부가 시작되었다. 슈베르트 작곡의 <헝가리풍의 디베르티멘토, Op. 54>를 손민수 교수와 변화경 교수가 연주할 차례였다. 객석의 불이 꺼지고 무대에 보스턴 한미 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이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공지사항을 전했다. 변화경 교수가 개

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객석에서 합창을 하는 듯 아쉬움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대신 백혜선 교수가 연주를 맡았다고 했다. 안 그래도 다섯 곡 중에 세 곡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던 백 교수였는데, 한 곡이 더 추가되었다. ‘오늘 음악회는 정말 그녀가 아니었으면 진행이 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어 손민수 교수와 백혜선 교수가 무대에 오르고 슈베르트 곡이 시작되었다. 포 핸드 곡이라서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음악이 너무나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느껴졌다. 듣는 이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음악, 저절로 몰입을 하게 되는 음악이 관객들을 어디론가 데려갔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사라지고 음악에 빠지는 마법의 순간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다른 두 분임을 너무나 잘 아는 데도 불구하고 같은 스승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인지, 이 날은 이 분들에게 동일한 음악적 피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객석의 반응도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곡은 라벨의 <라 발스>.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여진 원곡을 라벨이 두 피아노로 편곡하고 스스로 초연까지 했던 곡이다. 비엔나 왈츠와 요한 슈트라우스를 기억하며 만든 이 곡은 다양한 색채와 끊임없이 이어질 듯한 뱃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30일 피아노 음악회 후 연주자들, 보스톤한미예술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김재휘 총영사 내외가 함께 했다 (사진 =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전상수리(Sangsuri Chun))

▶▶6면에 이어서

뱅 도는 움직임, 강렬한 불협화음 등이 특징이다. 계속 고조되는 에너지와 흥겨운 3박자의 움직임 속에 백교수와 손 교수의 움직임과 터치도 더욱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게 상승되어 나갔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진 후 모두의 호흡이 정지된 것만 같은 몇 초가 지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환호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박수를 보냈다.

계속 이어지는 박수 속에 모든 연주자들이 무대에 나와 인사하고 앙코르 곡으로 드보르작의 <슬라빅댄스, Op. 72-2>와 라흐마니노프의 <식스헨즈를 위한 로망스>를 연주해 주었다. 드보르작은 김정자 교수를 제외하네 명이 한 피아노에 두 명씩 앉아 연주했고, 라흐마니노프는 김교수가 합류하여 한 피아노에는 세 명이, 또 다른 피아노에는 두 명이 앉아서 연주했다. 피아노 의자를 이리저리 붙여 앉을 자리를 만드는 모습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함께 연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시간이 보였다. 1960년에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뉴욕 퍼포밍 아트스 고등학교로 유학을 와서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한국인 학생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던 소녀, 김정자 교수

는 지난 해 보스톤 컨서바토리에서 교수 재직 50주년을 맞이했다.

1994년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최초의 한국 여성, 곧 서울대학교의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안정된 자리에 있었던 백혜선 교수. 10년 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 중년의 나이에 다시 미국에서 연주자로 도전했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 언제나 따뜻하고 품이 넓은 그녀의 음악은 오늘도 관객의 마음을 흔들고 어루만졌다.

내가 2000년대 초반쯤 보스톤에서 젊은 유망주로 처음 연주를 접했던 손민수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시간을 거쳐 이제 탁월한 중견 연주자이자 스승이 되었다. 그동안 몸담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떠나 이번 가을부터 NEC 교수로 스승들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더욱 깊어진 그의 음악을 잠시나마 이날 연주에서 엿볼 수 있었다.

젊은 연주자인 변은선과 신창용은 앞날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연주자들이었다. 자신만의 컬러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앞으로 그들이 펼쳐갈 음악과 행보가 기대되었다. 독주회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꼭 다시 만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연주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에게는 이런 음악회를 볼 수 있는 보스톤에서의 삶이 새삼 감사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 분들이 음악을 자신의 길로 선택해 준 것과, 힘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며 우리에게 음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그저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학생은 교수가 되었고, 젊은 교수는 중년의 원숙한 연주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50년을 가르치고 연주하며 백발이 된 피아니스트의 열정은 아직도 뜨거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피어나는 젊은이들이 있다. 객석의 관객들도 각각 그 세월을 보내며 함께 흐르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연주 후 하루가 지났다. 변화경 교수의 남편이자 '건반 위의 철학자'라 불리던 러셀 셔먼 교수께서 연주했던 토요일에 93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인생을 가르쳤던 아름다운 한 영혼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셨다. 셔먼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변화경 교수께 애도의 마음과 위로의 뜻을 전한다.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후원 모금 리셉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10월 15일(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케임브리지 소재의 파구 (Pagu) 레스토랑에서 제12회 연례 모금 리셉션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낸시 셀바지 (Nancy Selvage) 작가가 지난 3월에 타계하신 김남희 도예작가를 '올해의 아티스트' 로 소개한다. 이 곳에서 김남희 작가의 유작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 몇 가지 서비스 품목도 판매될 예정이다. 버클리 학생들의 재즈 음악도 즐길 수 있다.

한국 문화를 보스톤 지역에 소개하고 예술인들을 후원하고자 2012년에 설립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는 올해에도 한국 전통예술 심포지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3세대에 걸친 보스톤 한인 피아니스트들을 소개한 조던 홀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지금은 한지 공예가 이종국 작가 초대전을 10월 22일까지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스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3년에 첫 조던 홀 연주를 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많은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에도 한국 전통에 관한 심포지엄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Collage New Music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 보스톤 심포니 부

지휘자인 얼 리(Earl Lee)가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협회 회원들의 그룹 전시회가 있을 것이며, 보스톤 미술관의 한류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기도 하다.

참가비는 120불이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Pagu 식당의 훌륭한 음식이 제공된다. 판매액과 기부금은 향후 예술협회가 보스톤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행사를 계속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국세청(IRS)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기관이므로 기부금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앞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계신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판매될 작품 및 상품 내역은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에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 정보>**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 리셉션  
 일시: 2023년 10월 15일(일) 오후 5:00-8시  
 장소: Pagu restaurant, 310 Mass Ave., Cambridge, MA 02139  
 상 세 정 보 :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연락처: [info@kcsBoston.org](mailto:info@kcsBoston.org), (781) 367-6724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mailto: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난치병 타깃 첨단연방건강연구 허브 케임브리지에 설치

### 알파-H(ARPA-H),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수십억달러 투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첨단 미건강연구기구의 허브가 케임브리지에 설립돼 난치병인 암,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첨단연구프로젝트기구(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즉 알파-H(ARPA-H)라 불리는 이 연구기구는 케임브리지에 “투자자 촉진” 허브를 설립한다. 이 연구기구는 연구소, 기업가, 그리고 벤처캐피탈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 연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의약품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구기구는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와 매사추세츠 주 연방 의원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해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설치되게 됐다.

ARPA-H는 바이든 행정부가 난치병 타개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여전히 워싱턴 DC에 남아 있다. 세번째 허브는 달라스에 설치되며 환자의 치료경험 등에 초점을 맞춘다.

ARPA-H의 레니 웨그진 디렉터는 “우리는 가능한 것을 최대한 확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레니 웨그진은 과거 보스톤의 킨코 바이오웍스(Kinoko BioWorks)에서 사업개발 부사장을 역임했다.

새로운 연방 연구 기구는 국방첨단연구프로젝트기구 즉 달파(DARPA)를 모델로 만들

어졌다. 달파는 다른 첨단 테크놀로지 중에서 현재 인터넷의 바로 전신이었다. 국방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개념적 기초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ARPA-H의 원래 계획은 하나의 센트럴 허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2025년 25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역상 안배를 통해 분산하도록 분리시킴에 따라 세군데로 분할됐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유치노력을 시작했다. 유메스 마티 미헨 총장과 리차드 닐 연방하원의원은 정치 및 사업계 인사들을 모아 ARPA-H 유치 노력을 시작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1월 취임 이후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힐리 주지사, 이본 하오, 경제개발부장관, 보건복지부 키이트 윌시 장관 등은 5월 케임브리지에 모여 ARPA-H 현장 조사단에 케임브리지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주정부는 7월 최종 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

ARPA-H는 케임브리지 1 브로드웨이(One Broadway)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 빌딩에 설립된다. 이곳은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의 미국지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이며 많은 한국기업들의 전초기지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 한인 바이오업계 주요 인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필두로 한국에서도 ARPA-H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 NYU 캠퍼스 주변 렌트비 가장 비싸, 보스톤/케임브리지도 최상위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동산 플랫폼 렌트홈에 따르면 미국내 150 대학 주변 렌트비가 가장 비싼 대학은 뉴욕 대학(NYU)이며 한달 렌트비가 무려 \$4,8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하버드 대학 주변 렌트비가 \$3,600로 가장 비쌌으며 미국내에서는 7번째였다.

뉴욕대학의 렌트비는 미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인디애나주 먼시의 볼 스테이트 대학의 월 \$800보다 6배나 비싸다.

대학 캠퍼스 주변의 렌트비는 일반적으로 미국내 중부 내륙지역보다는 미 동부와 서부가 더 비싼 경향이 있다. 따라서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등지에서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며 몇 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

렌트홈에 따르면 미국내 캠퍼스 주변 렌트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됐다. 이는 급격하게 인상된 모기지 금리로 인해 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대학 주변은 뉴욕 또는 LA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보스톤의 높은 집값 및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았다. 하버드에 이어 보스톤대학(BU) 주변도 월 \$3,500로 미국내 9위를 차지했고 노스이스턴 대학 주변은 \$3,400로 미국내 12위를 차지했다. 다만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에 있는 유메스 애머스트의 경우 \$1,250로 저렴했으며 미국내 106위에 속했다.

다음은 렌트홈이 제시한 캠퍼스 주변 아파트 렌트가격 순위다.

캠퍼스 주변 렌트비 상위 10위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 \$4,800/month median rent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New York, NY) - \$4,102/month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Irvine, CA) - \$3,975/month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Santa Barbara, CA) - \$3,895/month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s Angeles, CA) - \$3,699/month
- University of Miami (Coral Gables, FL) - \$3,650/month
-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3,600/month
-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3,595/month
- Boston University (Boston, MA) - \$3,500/month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an Diego, CA) - \$3,495/month
- Ball State University (Muncie, IN) - \$800/month median rent
- Clemson University (Clemson, SC) - \$835/month
-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 \$870/month
-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 \$875/month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Huntsville, TX) - \$902/month
- West Virginia University (Morgantown, WV) - \$912.50/month
-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 - \$922.50/month
-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 - \$927.50/month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Lincoln, NE) - \$970/month
-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975/month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정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재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지지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 직각 어깨 + 여러여리한 팔 + 섹시한 뒷태를 위한 하루 10분 상체 토닝 운동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분들이 하체에 비해 상체 근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근력의 차이는 체형의 차이,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체로 인해 얼굴이 더 커보이거나 하체가 두꺼워보이는 경우도 많구요, 등과 코어의 근력이 부족하면 허리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자세도 바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상체 근력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릴 테니 집에 물통이나 덤벨이 있다면 같은 무게의 것으로 2개 준비해 함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맨몸운동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7) 살빼지는 요가 서서 하는 10분 상체..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땀도 나고 개운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팔을 제외한 상하체를 최대한 고정시키고 팔을 중앙으로 조이며 엷다운을 반복해 주세요. TIP!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고 복부를 끌어당



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 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 1. Standing Twist Knee Crunch : 팔 + 복근 운동

1단계 가벼운 덤벨을 들고, 혹은 주먹을 쥐고 한팔을 천정으로 다른 팔은 바깥으로 뻗어 줍니다.

2단계 위로 뻗었던 팔을 구부려 팔꿈치와 반대쪽 무릎을 터치합니다.

3단계 같은 동작을 30초 반복하고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4단계 중간에 힘들면 무게를 놓고 운동해 주셔도 돼요.

TIP! 위 옆으로 팔 뻗을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2. Triceps Extension + Pulse : 삼두근 운동 (팔 독살 제거)

1단계 고관절부터 접어 상체를 내리고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2단계 두 팔을 뒤로 뻗고 손바닥을 천정을 향해 최대치까지 올려줍니다.

겨 코어를 안정화시킵니다.

--영상을 참고해 8가지 동작을 두세트 반복, 10분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따라하시면 칼로리 소모와 근력 향상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http://www.yogafulness.life)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 오전 11시 (Korean) /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처: stadparish@gmail.com /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래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CHOISIGNS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레드삭스 너클볼러 팀 웨이크필드, 암으로 세상 떠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너클볼 투수로 레드삭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팀 웨이크필드가 10월 1일 아침 세상을 떠났다.

57세인 웨이크필드는 최근 뇌암을 판정받고 수술 후 투병중이었으나 불과 몇주 전 NESN TV의 지미 펀드 연례 행사에 참여해 건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의 사망 소식은 보스톤 레드삭스 팬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칼럼니스트 댄 쇼흐네시(Dan Shaughnessy)는 123년 보스톤 아메리칸리그 베이스볼 프랜차이즈 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2023년 10월 1일을 규정했다.

너클볼러인 웨이크필드는 레드삭스와 17시즌을 함께 하면서 186승을 거뒀다. 그는 2004년 레드삭스가 86년간의 저주를 깨고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하는데 주역이었다. 특히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에서 양키스와의 3연패 후 4연승을 이끌어낸 핵심 멤버 중의 하나다.

그는 ALCS 3차전에서 19대8로 난타 당하며 투수진이 바닥난 상황에서 중간계투로 기꺼이 출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스톤

레드삭스는 이날 패배 후 기적적으로 4연승을 기록하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쇼흐네시는 이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추억했다. 그는 30여년간 보스톤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회활동과 자선사업에 앞장섰다. 지미펀드 골프토너먼트를 주최했고 의미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섰다.

이런 측면에서 웨이크필드는 사랑 받았고 지금을 슬퍼하고 있다고 쇼흐네시는 적었다.

팀 웨이크필드의 아내 스테이시도 암으로 투병중이었다. 웨이크필드는 수주 전 갑자기 시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뇌암을 판정받았다. 이후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기의 암 투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주 27일 수요일 과거 레드삭스 투수 커트 실링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투병사실을 공표하면서 야구계는 물론 스포츠계 전방위의 공분을 샀다.

레드삭스는 성명서를 통해 “팀 웨이크필드 부부의 건강은 아주 깊숙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로 그들은 치료를 받는 대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팀과 스테이시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과 지원

WATCH-GLOBETOWN | RETRO | SPORTS | BUSINESS | POLITICS | OPINION | HEALTH | NEWHAMPSHIRE | RHODEISLAND | COVID

DAN SHAUGHNESSY

## Always more than a baseball player, Tim Wakefield was a hero, on and off the field, for the Red Sox

By Dan Shaughnessy Globe Staff Updated October 1, 2023, 2 hours ago



댄 쇼흐네시 칼럼니스트의 부고 칼럼

에 감사했으며 지금은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공손하게 부탁했다” 고 밝혔다.

웨이크 필드는 레드삭스 선수로 함께 하면서 두번의 월드시리즈 우승반지를 손에 끼었다. 그는 439게임에 선발출장했으며 프랜차이즈 사상 가장 많은 3,006이닝을 던지는 이닝이터였다.

테리 프랭코나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 감독은 “그는 언제든지 기꺼이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때나 투수진이 바닥났을 때 그는 나를 찾아 ‘던질 준비 됐다’ 말하곤 했다” 고 그를 추억했다.

웨이크필드는 지난 2003년 그라디리틀 감독이 이끄는 ALCS 7차전에서 애런 분에게 끝내기 홈런을 내줘 자신이 21세기 빌 버크너가 되는 불명예를 알지 않을까 그해 겨우내 걱정했었다고 쇼흐네시는 전했다. 2004년 팬들은 웨이크필드에게 환호를 보내며 그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8월 30일 벌어졌던 20차 지미펀드 레레이톤에 출연한 웨이크필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마지막에 다음의 인사를 남겼다. “고맙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다음주에 뵙겠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국채금리 급등...10년물 4.8% 돌파

###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채권가격 급락에 'SVB 사태' 재발 우려 부상 "시장, 고금리 장기화 적응 시기"...국내 금리도 상승 영향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기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이날 연 4.8%를 넘어섰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웍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3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 무렵 4.8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전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3bp(1bp=0.01%포인트)가량 급등한 수치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지난달 27일 4.5%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간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4.95%로, 5%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투자자들이 매과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소화하면서 금리 상승세를 견인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연설에서

"연준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 후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 다른 연준 인사들도 긴축 강화를 지지해 연준의 매과적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월가 주요 인사들도 고금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시장 경계감을 키웠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말 7% 금리로 가는 것이냐"란 질문에 "금리가 5%로 갈 것이라고 (지난해) 내가 말했을 때도 사람들은 '정말로 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며 "(7% 금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도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대를 키웠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건으로 전월 대비 69만건(7.7%) 증가해 시장 전망치 880만건을 크게 웃돌았다.

구인 건수의 반등은 미국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 정치권발 불확실성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같은 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



기자회견 중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안 처리를 주도했다. 채권 금리 상승과 맞물려 달러화 가치도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오전 107.35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채권 금리 급등 여파로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1%대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430.97포인트(-1.29%) 내린 33,002.3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

수는 58.94포인트(-1.37%) 하락한 4,229.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31포인트(-1.87%) 내린 13,059.47에 각각 장을 끝냈다.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 유동성 위험을 우려하는 경계감도 다시 커졌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탓에 금리 급등 시 평가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 장 미국채를 많이 보유했다가 금리 상승으로 자산 평가가치가 하락하자 유동성 우려가 부각되며 지난 2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베어트랩스 리포트 창립자인 래리 맥도널드는 "핵심자본이 약화하면

다른 부문의 약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채권 금리가 6~7%로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지난해는 시장이 금리 상승에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고금리 장기화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미국채금리 급등으로 연휴 기간 휴장했던 국내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한 달간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휴 전인 지난달 26일 4%선을 돌파했다.

pan@yna.co.kr

**중환안과**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공화, 하원의장 경선 점화...해임결의안 개혁 요구 '분출'

### 하원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 양강 대결 가능성...강경파 표심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강경파의 반란으로 자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공화당에서 5일(현지시간) 본격화했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장 경선에는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오하이오·59)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동료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안보, 국경 강화, 정부 지출 통제 등을 거론한 뒤 "미국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57)도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하원의장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다시 올바른 길에 되돌려 놓기 위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조던 위원은

당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 하원의장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특히 이번 반란을 주도한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였던 조던 위원장은 연초 하원의장 선거 때도 매카시 전 의장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그는 매카시 전 의장을 지지하고 매카시 전 의장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친(親)트럼프인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 등을 파헤치는데 집중했으며, 매카시 전 의장이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협력적으로 일했으나 중도와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경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에 적합하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전했다.

반대로 매카시 전 의원을 축출한 강경파 입장에서 조던 위원장이 매카시 전 의장과 가까웠던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컬리스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매카시 전 의장에 이어 하원 공화당 서열 2위인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당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는 2017년 야구 연습장에서 총격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고 있어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상태다.

또 매카시 전 의장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 성향 면에서는 매카시 전 의

장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매카시 전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해 축출한 맷 게이츠 하원 의원(플로리다)은 NBC 방송에서 "스컬리스나 조던 아래에서 하원은 매카시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 보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장인 케빈 헨 의원(오클라호마) 등도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 하원 의장 선거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하루 전인 10일에 후보들의 정견 발표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장은 과반 득표로 결정되며 이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의장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221명)과 민주당(212명)간 의석 격차가 크지 않고 20명 정도 되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이번에도 이탈할 경우 연초보다 의장 선출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15차례 투표 끝에 하원의장에 당선됐으며 이 과정에 강경파에 다양한 양보를 했다. 이번에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되게 된 계기가 된 해임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낮춘 것도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 공화당 내에서는 하원 대혼란의 원인이 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해임 결의안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의장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작년 진료비 총액 100조원 처음 넘어...노인이 전체의 43% 차지

### 노인 1인당 진료비 전체 평균의 2.6배...의원에 지급 건보급여 18.2%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천833만일로 직전년보다 10.5%나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진료비의 43.1%인 44조1천187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직전년의 43.4%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9.5%)보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8.6%)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은 17.0%였는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42만9천585원으로 전체 평균 16만6천73원의 2.6배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입원일수는 노인이 3.75일로 전체 평균 1.31일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건보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천250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진료비 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급여율'은 74.9%로, 2020년(75.3%), 2021년(7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이 34.3%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직전년보다 3.0% 늘어난 26조3천310억원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전체의 30.0%(23조70억원)인 의원급(치과의원·한의원 포함)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의원급은 증가율이 18.2%로 가장 컸는데,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24.1%나 됐다. 약국은 11.7%, 병원급은 5.6% 직전년대비 늘었고, 보건기관은 1.8% 줄었다. bkkim@yna.co.kr



입원실 병상 회전하는 의사-노인 환자

## 서울시, '백만 운집' 세계불꽃축제 종합지원대책 가동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을 26% 늘려 행사장을 비롯해 인근 지하철역 인파

를 분산하고 주정차 단속 업무 등에 투입한다.

행사를 앞둔 5~6일에는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5일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비상 상황 시 나리요를 포함하는 현장점검을, 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소방·구급차·의료인력은 행사장 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사장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까지 관리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찰선 36척이 투입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 상 구간의 민간 보트 운행이 통제된다. 한강대교 위에 있는 노들섬은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폐쇄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도 들어갈 수 없다.

7일 오후 2~11시에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는 우회해야 한다.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0개는 모두 해당 시간에 우회 운행하고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노들섬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는다.

시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민이 교량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에 한강대교, 마포대교 등에서 승객을 승하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은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다.

eun@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6th - OCT. 12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WICKED WITCH FINGER KIMBAP FOR HALLOWEEN

This Halloween treat will be the most bewitching finger food at your haunted gathering this month, you might even startle yourself!  
 곧 다가올 할로윈 파티를 위해 H 마트와 함께 어마무시한 마녀 손가락 김밥을 만들어보세요!



Lago Grape 라고 포도 HALF BOX <b>\$24.99</b>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b>\$1.99</b>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b>\$1.29</b>	Kabocha 단호박 LB <b>\$0.99</b>	Fuji Apple 후지사과 LB <b>\$1.99</b>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Seedless Orri Mandarin 씨없는 오리 만다린 LB <b>\$2.99</b>	Ginger 생강 LB <b>\$2.99</b>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b>\$3.99</b>	Sweet Potato 고구마 LB <b>\$2.4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b>\$6.99</b>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b>\$3.99</b>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b>\$5.99</b>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
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b>\$11.99</b>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b>\$12.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Unagi Kabayaki 우나기 9 OZ/PKG <b>\$9.99</b>	Frozen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산 고등어 400-600'S/LB <b>\$1.99</b>
Louisiana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WILD CAUGHT 9-12'S/LB <b>\$6.99</b>	SUHYUP Frozen Oyster 수협 굴 8 OZ <b>\$3.99</b>
Frozen Salted Sole Fillet 자반 가자미 200-300'S/LB <b>\$4.99</b>	Fresh Salmon Fillet 연어 필렛 LB <b>\$9.99</b>

### SMART CARD MEMBER ONLY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b>\$13.99</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3.99</b>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청파래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b>\$12.99</b>	YGSP Bung-Eo Ppang from Yonggoong 용궁식품 용궁에서 온 붕어빵 RED BEAN/CUSTARD CREAM 2.31 LB (15 EA/PKG) <b>\$9.99</b>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쌀 옐로우 15 LB <b>\$16.99</b>	CJ CHUNGJUNGONE O'FOOD Bap Cooked White Rice CJ 청정원 즉석밥 7.04 OZ X 12 EA BOX <b>\$11.99</b>	OTTOGI Asian Style Instant Jjajang/Ijambong Ramen 오뚜기 북경 짜장/짬뽕 4.76 OZ X 5 EA/PKG <b>\$5.99</b>	SUNGGYUNG FOOD Doljaban 1+1 (Seasoned Laver Flake) 성경식품 참돌자반 1+1 2.46 OZ X 2 EA/PKG <b>\$2.99</b>	HAIKO Korean BBQ Sauce 해오름 고기 양념 BEEF (SHORT RIB)/BULGOGI/PORK BULGOGI 29.63 FL OZ <b>\$3.99</b>
SAMJIN Fish Cake Single Meal Set 삼진어묵 딱한끼 세트 2.74 LB (4 EA/PKG) <b>\$12.99</b>	HAITAI Fried Squid 해태 통살 오징어튀김 14.1 OZ <b>\$6.99</b>	K TOWN Dukboki Traditional Family Recipe 케이타운 그때 그맛 국물 떡볶이 SPICY/MAD SPICY 1.32 LB <b>\$4.99</b>	JINGA Seasoning Mix for Soondubu 진가 순두부찌개양념 MILD/SPICY 3 POUCHES/PKG <b>\$3.99</b>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허니 파우더 1 LB <b>\$2.49</b>
KEMY Crispy Cheese Balls 개미식품 치즈볼 12.34 OZ <b>\$4.99</b>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CHOCOLATE/STRAWBERRY/COOKIES & CREAM 3.81-4.45 OZ (9 EA/PKG) <b>\$6.49</b>	KüHAUS 2-Slice Retro Toaster 쿠하우스 레트로 2구 토스터기 IVORY/MINT <del>\$24.99</del> <b>\$17.99</b> EA	BBQ Dish 3 Colors Set 야외용 바베큐 삼단 접시 <del>\$7.99</del> <b>\$4.99</b> 3 PCS SET	KOTO Glass Tea Kettle with Stainless Infuser 코토 유리 티망(스텐) 주전자 <del>\$15.99</del> <b>\$9.99</b> EA

###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rystals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줄리 김</b> 578.43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박</b> 617.780.7835 <small>depeter@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8.3248 <small>depeter@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윤 조</b>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파크</b> 617.88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김</b> 617.435.7713 <small>grac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88.8973 <small>hy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라 송</b> 213.303.0397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메기 파크</b> 413.507.1402 <small>meg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선호 김</b>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헌진</b> 617.877.0387 <small>he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 김</b> 781.850.3412 <small>my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혜숙</b> 781.899.1214 <small>msu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선영</b> 617.315.1162 <small>js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호준</b> 617.543.5728 <small>jiho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래이철 김</b> 617.852.7489 <small>eu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chae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0.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4.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크 김</b> 617.595.3409 <small>jee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강현</b> 857.280.0434 <small>ik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655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n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尹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기자 "검찰·JTBC가 자신의 수사 기획"

### 봉지욱, 포렌식 조사 출석...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한 몸"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훈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기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JTBC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봉지욱은 5일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선 공작"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JTBC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봉지욱은 당시 보도가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사과한다"고 JTBC를 비판했다.

보도 내용을 두고는 "검찰이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가"라고 반문하며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과 세탁에 관여했고, 차명 회사 4곳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

실상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분명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우형과 제가 2021년 10월 26일에 10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걸 조만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봉지욱은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21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사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과장'이라고 보도했다. 봉지욱은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JTBC는 지난달 6일 뉴스룸 방송에서 당시 보도가 왜곡된 보도였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봉지욱이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고의로 빠뜨린 채 당시 주임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씨의 수사

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집중하면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llluck@yna.co.kr

# 황선홍호, 금메달 향한 '마지막 한 걸음'... 7일 운명의 한일전

### 5년 전 '연장승리' 이어 2회 연속 결승 격돌... 지난해 한국 3-0 완파한 일본, 대표팀 '2001년생 이하로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정수연 기자 =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패권을 놓고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이 다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24세 이하(U-24)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중국 항저우의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향해 남은 마지막 한 경기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9-0), 태국(4-0), 바레인(3-0)을 상대로 실점 없이 16골을 몰아쳤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1로 완파했고, 중국과의 8강전 2-0, 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을 2-0으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특히 개최국 중국과 '연령별 대회의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만나는 고비를 침착하게 넘으며 3회 연속 금메달의 희망을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 6경기를 치르는 동안 25골 2실점을 기록하며 전승을 내달리고 있다.

유럽과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까지 7

골을 몰아치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점차 한 팀으로 단단해지며 난적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지막 관문까지 올랐는데, 하필 마지막 상대가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도 남자 축구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한 바 있다.

당시 두 팀은 90분 동안 0-0으로 맞서며 연장전을 치렀는데, 연장전 반 3분 이승우(수원FC)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연장 전반 11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두 번째 골이 나오며 연장 후반 10분 한 골을 만회한 일본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인천 대회 때는 두 팀이 8강전에서 만나 한국이 1-0으로 승리, 금메달 획득의 발판을 냈다.

이를 포함해 역대 23세 이하 대표팀 단위에서 상대 전적은 17경기 7승 4무 6패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선다.

다만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6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0-3으로 완패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홍현석(헨트), 조영욱(김천) 등 이번 대표팀



4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전반 대한민국 정우영(왼쪽)이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이한범과 함께 달려 기뻐하고 있다.

의 주축 선수가 당시에 대표팀에 포함됐던 터라 이번 맞대결은 '설욕전' 성격도 지닌다.

황선홍 감독은 다시 한일전으로 성사된 결승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겠다. 다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한 발을 딛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회 남자 축구엔 1999년생 이하 선수가 출전할 수 있고, 24세가 넘는 '와일드카드'를 3명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일본은 이번 대회 2001~2004년생의 젊은 선수들로만 팀을 꾸렸다.

대다수가 자국 프로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브라질에서 뛰는 해외파가 일부 포함돼 있다. 리그가시마 엔틀러스 사령탑을 지낸 오이와 고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3개 팀만 경쟁한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에 3-1, 팔레스타인에 1-0 승리를 거두며 1위를 차지했고, 16강에서 미얀마(7-0), 8강에서 북한(2-1), 준결승에

서 홍콩(4-0)을 차례로 따돌렸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3골(우치노 고타로)을 기록 중이며, 8명의 선수가 골맛을 보고 큰 득점 분포와 조직력이 특징으로 꼽힌다.

대표팀 주장 백승호(전북)는 "아무리 어렵고 일본은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좋고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라며 "일본이 최고 전력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 골프와 인생 6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8번홀 : 골프 그리고 가정(假定)

인생을 살다보면 “그때 만약 이렇게 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가정을 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 역시 18홀을 돌고 점수표를 되세겨 보면서 이미 끝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속에서 매 홀 후회와 가정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과 다를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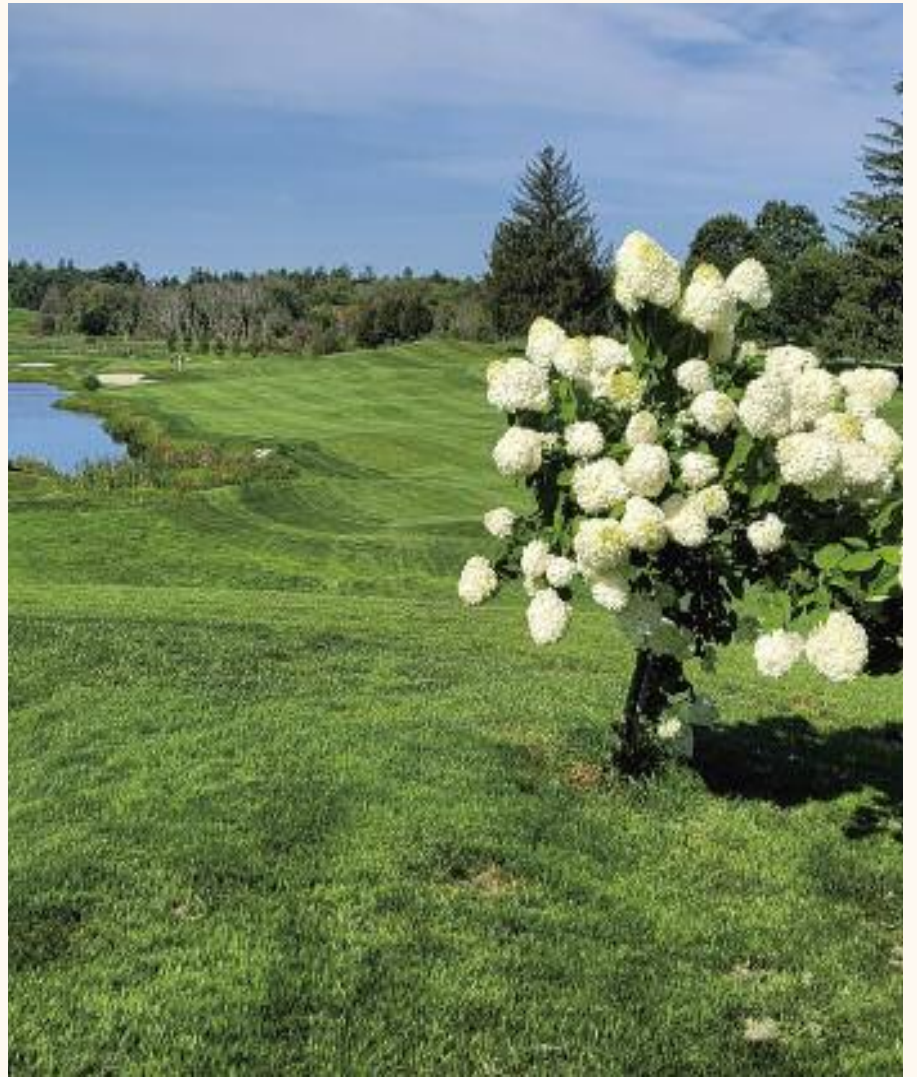
자! 이제 나는 8번홀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을 위한 어드레스(스윙을 하기 직전의 볼에 대한 몸의 자세)를 잡는다. 이번 홀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350야드 도그레그(DOG LEG :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을 말한다. 구부러진 코스 모양이 하늘에서 볼때 개의 뒷다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워진다) 4홀이다. 샷을 할때마다 “머리를 들지 말아야지, 허리를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휘니 안전하게 왼쪽 언저리를 겨냥해야지” 하는 등 매번 오만가지 잡생각이 들지만 이런 잡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볼에만 집중한 결과로 나의 티샷이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며 날아갔다.

시원하게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나의 티샷은 내가 처음 마음먹은대로 오른쪽으로 휘는 지점의 왼편에 정확히 안착했다. 내가 맘먹은 대로 샷을 날린다는게 골프경기 중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희한한 일이라 내 자신도 어안이 병병한 채로 세컨샷 지점을 향해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긴다. 나의 세컨샷 위치는 홀까지 약 150에서 160야드 정도를 남겨놓고 페어웨이(FAIRWAY : 티에서부터 그린까지 이어지는 손질해 놓은 잔디길)에 안착한 그야말로 최상의 조건에 놓여 있었다. 흔치않은 찬스에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홀 최소 파(PAR)로 마무리 한다는 아무진 생각으로 세컨샷을 준비

한다. 평소 150야드 정도면 7번 아이언을 잡고 운이 좋으면 온그린(On Green)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그린 못미친 주변에 떨어뜨린 후 칩샷(CHIP SHOT: 손목만을 이용한 어프로치의 일종으로 단거리에서 핀을 향해 치는 샷)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나의 골프 패턴이었다. 그러나 파를 기대하며 투운을 목표로 한 지금 7번 아이언이 왠지 좀 짧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빼 들은 클럽이 6번 아이언. 자신감을 가지고 힘껏 스윙해 본다. 손맛이 짜릿할 정도로 잘 맞은 샷이다. 볼이 그린을 향해 날아간다. “와! 오늘 골프 좀 되는데!” 하고 느끼는 순간 옆에 있던 캐디가 “어어어” 하며 탄식을 한다. 볼은 그린을 훌쩍 넘겨 깊은 러프 속으로 쳐박히고 만다. 파에 대한 나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이때 “만약 6번이 아닌 평소대로 7번을 잡았다더라면...”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간다. 인생이나 골프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깊은 후회와 함께 ‘만약’이란 단어가 가슴속에 파묻힌다.

그렇다. 만약이라는 말은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결과의 가정(假定)을 의미한다. 즉 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의 결과를 가정하는 일이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인생의 길이 수학처럼 답이 하나일 수 없기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만약’속에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고속도로가 막혀 로컬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로컬길도 막히는 마찬가지로. 결국 약속시간을 훌쩍 넘겼다. “만약 고속도로로 그냥 갔으면 약속시간을 지키거나 양해될 정도로 약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사소한 ‘만약’에



서부터 직장을 옮기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하는 인생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약’까지 인생의 대부분이 이 ‘만약’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살아가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이란 단어는 생기지 않은 일 대한 결과를 가정해 보는 부질없는 짓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부질없는 짓이 꼭 잘못되거나 나쁜일 같지는 않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똑같은 상황이 빈번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에서도 18홀을 돌면서 비슷한 상황이 가끔 연출되기도 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때 이 ‘만약’이 경험이 되어 마음속에 자리 한다면 두번째 비슷한 상황에


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인생이나 골프나 수많은 ‘만약’ 속에서 경험을 쌓게 되고 똑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이 ‘만약’이란 단어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번 여덟번째 홀을 돌면서 ‘만약’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싶다. ‘만약’이란 단어가 그저 말 그대로 후회로만 연결된 부질없는 말로만 끝날 수도 있고 이 ‘만약’이 경험으로 축적되어 내 삶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는 단어로 연결될 수도 있기에 ‘만약’을 후회로만 남겨놓지 않고 인생의 경험으로 축적해 똑같은 실수를 두번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K-FESTIVAL



## KIMCHI FESTIVAL

OCTOBER 14TH (SATURDAY) 2023

11 AM TO 3 PM

CASTLE ISLAND

ADDRESS: 2010 DAY BLVD.

BOSTON. MA 02127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Giant Bibimbap showcase

K-Pop 댄스 경연대회

K-pop Dance contest

사생대회/백일장

Art & essay contest

한복체험 사진관

Traditional korean clothing experience photo booth

김치 만들기

Kimchi making

태권도 시범

Taekwondo demonstration

제기차기,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윷놀이, 달고나 만들기, 오징어 게임, 등등

Korean Folk Games

푸짐한 상품과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e've got awesome prizes .**

**Come on over everyone !**

추천:  매사추세츠 한인회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협찬:  보스톤총영사관,  보스톤 코리아, 한미노인회, **BB.Q**

**CHICKEN USA, CHOW BUS, 종로상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7) RMD의 모든 것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은퇴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2023 기준으로 나이가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0,000을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하여 \$2,500이 벌금이 된다. 찾아야 하는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로 인출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서 찾아야 하는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73살 되는 분의 연금자산이 2022년 말 기준 \$500,000이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

아야 하는 RMD는 \$18,868이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은퇴 계좌가 여러 곳에 있으면 여러 곳에 있는 금액을 다 합하여 RMD를 계산한 다음 RMD를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A 은퇴 계좌에 \$300,000, B 계좌에 \$200,000, 그리고 C 계좌에 \$100,000으로 총합계 \$500,000이 된다. 이럴 때는 RMD \$18,868을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A 계좌에서 \$10,000, B 계좌에 \$8,000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을 찾아도 된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여러 직장의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는 달리 RMD를 각각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한다. 그러나 은퇴계좌에서 꺼내는 액수는 수입으로 되기에 그해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을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Medicare Part B premiums)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형성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하기에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최초의 원화 준정이 또 다른 원화 남모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북천(北川)으로 데려가서 살해한(또는 살해하여 북천에 유기한) 사건이 540년에 일어났다(삼국사기에는 576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천(北川)은 조선시대까지는 알천(阿泉)이라고도 불렀다. 북천은 경주의 북쪽에서 흐르니 북쪽의 내라는 보통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황룡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저수지인 덕동호를 거쳐 보문호(보문관광단지)로 흘러 들어가 시내 황성동을 지나 형산강에 합류한다. 또한 북천은 덕동호에서 보문호까지의 구간은 신평천, 동천동을 지나 구간은 동천이라고 부른다.

경주에는 물론 남천도 있다. 남천은 문천(汶川)이라고 불렀다. 남천은 외동읍 신계리에서 발원하여 불국사 주변을 거쳐 국립경주박물관, 월정교, 동부역사 사적지구 등을 지나 사정동에서 형산강에 합류한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는 모퉁이마다 역사의 열이 서려 있지만, 여기서는 원화 준정이 남모공주를 살해하여 유기했다는 북천에 관한 몇가지 사실(史實)과 전설을 보고자 한다.

먼저, 알에서 태어난 시조왕 박혁거세를 목욕시킨 곳이 북천인데, 당시의 북천과 현재의 북천이 같은 곳인가에 대한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간 북천이 홍수로 유명세를 떨친 것을 감안해 보면 물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천동 금학산 남쪽 자락 끝의 돌출된 부분의 바위에 '알천(阿泉)제방수개(濟防修改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6호)가 새겨져 있다. 이 유적은 1707년(숙종33년)에 백성들이 홍수를 예방하고자 알천의 제방을 수리하고 공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긴 비문이다. 바위 삼면에 90여자로 정비한 내용과 관련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북천 인근에 제41대 헌덕왕릉이 위치하고 있는데, 잦은 홍수로 인해 십이지신상이 조성된 왕릉 가운데 가장 훼손이 많다고 전한다.

북천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분황사가 북쪽에는 헌덕왕릉이 있다. 북천의 홍수와 관련하여 강남쪽의 구황마을과 북쪽의 동천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매년 장마철이면 두 마을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래서 동천마을 사람들은 홍수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헌덕왕릉에 가서 빌고, 구황마을 사람들은 분황사 부처에게 빌었다. 홍수 때마다 동천의 헌덕왕 혼령은 물길을 남으로 돌리려 하였고, 분황사 부처는 구황

사람들을 위하여 물길을 북쪽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물길이 북쪽으로 흘러들 때는 헌덕왕릉의 비석과 석상이 땀을 흘렸고, 물길이 남쪽으로 지우쳐 흐를 때는 분황사의 부처가 땀을 흘렸다고 한다. 때로는 헌덕왕의 혼령과 분황사의 부처가 워낙 치열하게 다투니 알천의 물이 하늘로 치솟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제방도 쌓고 제방에 나무도 심으며 홍수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분황사 북쪽은 황무지로 변했고, 헌덕왕릉은 상당히 허물어져 석사자며 문무인상도 모두 홍수로 유실되었다. 즉 위의 전설로 보면 북천(알천)의 홍수가 때로는 북쪽 제방을 넘어 헌덕왕릉을 침수시켰고, 때로는 남쪽 제방이 허물어져 분황사를 침수시켰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홍수의 피해는 근래까지도 이어졌다.

북천은 상류에 덕동댐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유난히 홍수가 많았다. 1975년에 착공하여 1977년에 완공한 덕동댐은 북천의 홍수 예방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국사 주변의 농업용수, 경주시의 생활용수, 관광용수의 공급 등 다목적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덕동댐의 장관은 호면에 노출되어 있는 나팔모양의 여수토(餘水吐)(펌프로 준설한 토사를 물과 함께 배사관을 통하여 토사장으로 부내는 출구, 덕동댐은 길이가 불과 16m 이기

에 여수토를 제당(堤塘), 즉 둑에 설치하기가 불가능해서 저수지 내부에 나팔형으로 설치해서 홍수를 막도록 설계되었다)인데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알천을 언급할 때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우리 역사에 있다. 제36대 해공왕이 2세의 나이로 후사가 없이 '김지정의 난' 가운데 피살되면서, 당시 상대등 김양상이 780년 왕위에 올랐다. 5년 후 김양상 역시 후사없이 사망하였으니, 조정의 귀족들은 태종무열왕의 차남 김인문의 현손 김주원을 차기 왕으로 옹립했다. 그래서 북천, 즉 알천 북쪽에 살던 김주원이 즉위를 하려고 왕궁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785년 음1월13일),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내린 폭우로 물이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시간에 왕궁에 있던 상대등 김경신이 왕좌를 꿰어차고 나서,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였다. 그가 제 38대 원성왕이다. 후일(822년3월)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김경신에게 왕위를 도둑 맞았다는 이유로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장안국을 세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5<sup>TH</sup> - OCT. 12<sup>TH</sup>, 2023

Tender & Flavorful  
Marinated Short Ribs



양념 LA갈비



\$12.99 LB

OCT. 19<sup>TH</sup> - NOV. 9<sup>TH</sup>, 2023

KGC i-Kicker Herbal Supplement



아이키커 사파리 팩  
3.38 FL OZ X 24 POUCHES/PKG



REG. \$35.99

\$19.99

apple  
12 POUCHES



grape  
12 POUCHE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도봉순' '비숲' '슬의생' 스펠오프 드라마들, 전작 넘을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봉순의 6촌 정도 되는 친척 강남순의 이야기를 다룬 '힘센여자 강남순', 황시목 검사의 선배 서동재 검사가 주인공인 '좋거나 나쁜 동재', 종로 율제병원에서 전문의를 꿈꾸는 전공의들의 이야기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드라마의 인물 또는 세계관을 일부 공유하고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내세운 스펠오프(spin-off)가 잇달아 제작되며 전작의 성격이나 평가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30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는 '힘센여자 도봉순'의 스펠오프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을 다음달 7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한다.

2017년 방송한 '힘센여자 도봉순'은 선천적으로 괴력을 타고난 주인공 도봉순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작은 체구에 앳된 외모의 배우 박보영이 괴력의 도봉순 역할을 맡아 온갖 답답한 상황을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색다른 재미 요

소가 되면서 최고 9.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힘센여자 강남순'은 도봉순과 6촌쯤 되는 친척 강남순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이유미가 강남순 역할을 맡아 박보영처럼 외모와 상반된 괴력의 인물을 연기하고, 박보영 등 전작의 주연 배우들이 특별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거나 나쁜 동재'는 tvN에서 방송한 '비밀의 숲' 시리즈의 스펠오프 드라마로 내년 티빙에 공개될 예정이다.

'비밀의 숲'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냉철한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이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다. 2017년 방송된 시즌이 높은 짜임새로 호평받아 2020년 시즌2가 방영됐다.

'좋거나 나쁜 동재'는 '비밀의 숲'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부패한 검사로 묘사됐던 서동재가 주인공이다. 그는 한편으론 사건을 해결하려다 위협에 놓이는 등 입체적인 인물로 표현

돼 많은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는 전작에서도 서동재 역할을 맡았던 이준혁을 그대로 캐스팅해 같은 인물이 다른 시간대에 겪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은 두 시즌에 걸쳐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펠오프 드라마로, 내년 상반기 tvN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율제병원 본원을 배경으로 99학번 의대 동기인 전문의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은 종로 율제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주인공이다.

아직 제작진이 전작과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작 주인공들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될 것이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배우 조정석과 김대명·전미도·정경호·유연석 등이 주축이 된 것과 달리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은 고윤정과 신시아·한예



지·강유석·정준원 등 신예들이 주연을 맡았다.

10월 8일 - 10월 14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두 손뼉이 마주쳐야**

- 운수: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도 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의 호흡을 잘 맞춰야 성과도 좋을 것입니다. ● 금전: 보편적으로 순탄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큰 해나 큰 이익이 없이 무해무덕하게 넘어갑니다. ● 애정: 무리 없이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니 편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10, 12일 주의.

**소띠 | 행운의 찬스가 있는**

- 운수: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도대로 밀고 나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얼마나 잘 맞춰서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행운의 찬스가 있는 시기입니다. ● 애정: 첫눈에 섹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만 날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범띠 | 실속 있게 활용해야**

- 운수: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지만 주변이 편하게 될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군요. ● 금전: 무리하게 험거운 계획을 세우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주어진 여건을 실속 있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가시 없는 장미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대로 가지 않으면 사랑을 포기하든지 하는 선택을 내야 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2, 13일 길일. 8, 14일 주의.

**토끼띠 |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 운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군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물건의 값어치가 없어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 애정: 잃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알고 후회하지 말고 행복안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1일 길일. 9, 10일 주의.

**용띠 |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 운수: 차차 마음이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나아지는 상태로 호전됩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이익이 따르고 하는 일마다 소득이 연결되어주니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속 시원하게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9, 11일 길일. 8, 10일 주의.

**뱀띠 |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도록**

- 운수: 하기 쉬운 일이라도 선불리 덤비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 애정: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좀 더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도록 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 운수: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겨하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군요. 일찍 들 어가도록 하세요. ● 금전: 자칫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애정: 잃고 당기기 전략에 꼼짝없이 휘말려들기 쉽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

**양띠 | 실천을 하도록**

- 운수: 여러 가지로 이러 저리 생각하여 보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상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 금전: 그동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미뤄왔던 것이 있다면 다소의 지출이 따르더라도 지금 사도록 하세요. ● 애정: 진짜 사랑을 옆에 두고 환상적인 사랑만 좇고 있군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멋진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원숭이띠 | 휴식을 가져야**

- 운수: 평소보다 활동력이 많아지니 체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휴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금전: 낡으면 다시 새롭게 바꾸고 적으면 채울 수 있지만 많으면 도리어 잃기 쉽습니다. ● 애정: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있어서 이별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겹쳐서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결국은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닭띠 | 닫고 있던 문을 열게 되는**

- 운수: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랜 인연을 만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점점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입도 늘어나고 자금 융통도 잘 될 것입니다. ● 애정: 굳게 닫고 있던 문을 서서히 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심기일전하여야**

- 운수: 자만하지 말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과 각오가 필요하니 심기일전하여야 합니다. ● 금전: 가급적이면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는 미루도록 합니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피땀 흘려 모든 금쪽 같은 재물을 한 입에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빠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심신의 안정을 갖도록**

- 운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갖도록 하세요. ● 금전: 자신의 행동이 상대의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 애정: 아무런 감정도 없이 교제하고 있는 커플은 끝을 낼 때입니다. 지금 헤어진다 해도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 주연보다 더 눈길 가네...극장가 '특급 카메오' 열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근 극장가에서 주연 배우보다 더 눈길이 가는 '특급 카메오'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스크린에서 보기 어려운 K팝 슈퍼스타부터 관객을 압도하는 신스틸러까지 다양한 배우들이 특별출연 형태로 영화에 등장한다.

최근 개봉한 김성식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에는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 분)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선녀무당'이 모시는 신(神) 선녀를 연기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캐릭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외모 덕에 단숨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포털 사이트의 '천박사' 연관 검색어에 지수가 올라오고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영화계 대표적인 신스틸러로 통하는 박정민은 선녀무당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짧게 등장하는 코믹 캐릭터이지만, 천박사가 쫓는 악귀 범천

(허준호)의 존재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이다.

박정민은 김 감독이 조연출로 참여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2020), '헤어질 결심'(2022)에 출연한 인연이 있다.

김 감독이 조연출 시절 맡은 또 다른 작품 '기생충'(2019) 출연자인 이정은과 박명훈도 '천박사' 카메오로 나왔다. '기생충' 때와는 달리 대궐 같은 집의 주인 인 부자 부부라는 설정이 이목을 끌었다.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에도 주연으로 손색없는 배우인 정우성이 특별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걸작을 만들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1970년대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의 스승인 신 감독을 연기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신성필름'을 손꼽히는 영화사로 키운 당대 최고의 천재 영화감독 역할이다.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촬영 중이었지만 차로 몇 시간 거리의 촬영장을 오가며 이틀간 '거미집'을 찍었다고 한다.

주연인 송강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성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

동료 배우로서 지켜보는데도 참 감동적이고 쫓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정우성이 신 감독 연기를 하면서 광기가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 처음 보는 모습이였다"는 극찬도 곁들였다.

정우성은 앞서 송강호와 함께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에 출연해 나란히 칸국제영화제까지 간 경험이 있다.

그는 이한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달짝지근해: 7510'에도 카메오인 땅꾼 역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성은 이 감독과 '증인'(2019)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영화에는 정우성뿐 아니라 이 감독 전작에 나왔던 배우 여러 명이 특별출연했다.

'오빠생각'(2016) 주연 임시완과 고아성은 '달짝지근해' 남녀 주인공인 치호(유해진)와 일영(김혜선)을 얼떨결에 화해시키는 어린 커플로 분했다. '증인'에 나온 염혜란은 사랑에 빠진 치호를 상담해주는 약사를 연기해 작품에 따뜻함을 더했다.

rambo@yna.co.kr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블랙핑크 리사, 프랑스 19금 쇼 '크레이지 호스' 출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명 '19금' 성인 쇼 '크레이지 호스'에 출연했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크레이지 호스는 물랭루주, 리도쇼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3대 쇼의 하나다.

1951년 전위예술가 알랭 베르나맹이 파리에 '크레이지 호스'라는 카바레를 열면서 시작된 쇼로, 무용수들이 하이힐, 조명, 영상을 곁들여 춤추는 공연이다. 파리 3대 쇼 가운데 가장 노출 수위가

높은 공연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에는 내한 공연이 성사된 바 있다.

리사는 공연 하루 전인 지난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파리 크레이지 호스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블랙핑크 동료 지수·로제도 팝스타 로살리아와 함께 파리를 찾아 리사를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살리아는 자신의 SNS에 리사, 로제,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tsl@yna.c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가스라이팅(gaslighting)!!”

요즘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된다. 유튜브 방송이나 정신 분야,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 듣게 된다. 나 역시도 상담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심리 분야와 함께 정신질환 부분도 공부하게 되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감각,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가는 그런 심리적 노예처럼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자기의 외적 권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억압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스라이팅의 가

장 큰 문제는 외적 권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 <Gaslight>에서 남편이 교묘한 거짓말과 상황 조작으로 아내의 생각을 조종하고 서서히 정신병자로 몰아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38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인기리에 상연한 동명 연극을 미국 MGM에서 영화로 각색했다고 한다. 정체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교묘하게 조종당하며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아내를 연기한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오스카와 골든글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안았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남편을 조심하라’ (Don't Trust Your Husband)는 대표적인 느와르 테마로 부상했고 남을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심

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으로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2019년에는 영화의 문화적, 사회적, 심미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미국 국회 의사당에 영구 보존되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도 알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미해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라진 브로치를 통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브로치를 건네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이다. 아내는 얼마 후 가방을 열었다가 브로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 없어요, 하고 당황하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세요! 라며 말이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지 기능(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런 암시가 실제 사건(브로치 분실)을 통해 사실로 밝혀 짐으로써 피해자인 아내는

자신의 기억력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아내)가 본인의 잘못으로 느끼게 만들어 가해자(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가해자(남편)는 피해자(아내)를 경시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또 가정부를 추켜세우는 동시에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내가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정부를 칭찬하면서 대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는 비교당하고 무시 당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인 것이다. 생각해 보라. 혹은, 내가 ‘피해자’는 아닌가. 또는 ‘가해자’는 아닌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탁란 과 육아



김희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배운다는 것. 그럴적에, 학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학교나 선생에 맡긴다. 지도편달을 부탁하는 거다. 사진 한장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 인지, 아니면 선생님인가. 회화작품을 앞에 두고 설명해 주는 그림이다. 전해주고 가르치며, 듣고 배우는 모습이 그럴듯 하다. 가르치는 이가 있다면,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탁란託卵. 낳은 알을 부탁한다는 말인데, 빠꾸기가 그러하단다. 빠꾸기는 알을 낳기는 한다면, 품어 부화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미 빠꾸기는 자신의 알을 다른 새 동지에 슬쩍 밀어 넣는단다. 그리고 2주 정도 새끼가 알을 깨고 태어나기를 기

다린다는 거다. 의탁依託이랄 수도 있고, 투탁投託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럴까. 빠꾸기 울음 소리는 가엽게 들린다. 시인도 그렇게 들었텐데, 오히려 애달다.

저 목소리 들어봐선 아닌 것 같다

저리 곱고 깊은 소리  
눈빛처럼 다급하게 알을 낳았으리라

염치머리 없다고 미안 미안하다고  
울어 울어도 죄 가지지 않는다 고

이산저산에 무릎 꿇는 울음메아리

(함민복, 빠꾸기)  
전제가 있다. 알을 맡길 적엔 유모乳母새가 반드시 잘 품어 줄 것 이라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감히 제 알을 선불리 맡길 수는 없을 터. 갓난아이를 유모에게 맡겨 먹이고 키우는 것과 같다고 나 할까.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는 아이라 할수도 있겠다.

빠꾸기도 제 새끼는 귀할 진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건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탁란을 넘어 육아育兒라 인게라.

미국에도 빠꾸기가 있던가. 분명 있을 것이다. Cuckoo라는 단어도 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사야 31:5)

한국에선 학교교사들이 집회를 갖았다고 했다. 추모행사를 겸해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했다던가. 교사들이 새로 부임하면 하던 말이 있다.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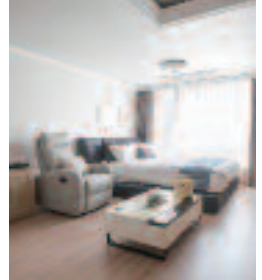
부모나 선후배 동료교사들에게 인사말이었다. 직역하자면 매질을 해서라도 지도 해달라는 뜻이다.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는 게 있다. 스승은 가르치고 학생은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0~40 대 젊은층 노리는 '대장암'..대부분 수술로 완치 가능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외과 손 정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30~40대 젊은층을 노리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이 힘든 치명적인 질병이다. 최근 발병이 늘고 있는 30~40대 젊은층은 대장암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 대장암 예방과 대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 따르면 184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이다. 특히 국제 의학 저널 랜싯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미만 젊은층 성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2.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젊은층은 육류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세대로 암으로 발전하는 대장용종과 염증성 장질환 등 대장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미국은 검사 권고 나이를 45세까지 낮

추었다. 국내도 50세 이하의 젊은 층부터 대장 질환 검진을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세 이상에서 분별 잠혈검사로 대장암을 진단하고 있다. 잠혈검사로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대장내시경 검사로 암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암 가족력이 있으면 젊은 나이 때부터 검진이 필요하며 가능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분류하는데 결장암 또는 직장암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이 대장암에 포함되어 있다.

초기 대장암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눈에 띄지 않는 장출혈로 인해 빈혈과 어지럼증이 생기며 식욕부진과 체중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 암이 더 진행된 경우 복통과 변이 가늘어지거나 혈변이 발생한다. 항문 출혈이 있을 경우, 단순 항문질환인지, 대장 종양의 원인인지 꼭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증상들은 상당히 대장암이 진행된 상황에만 나타난다.

40세 이상 성인에게 배변 습관의 변화와 혈변, 빈혈이 발생한다면 병원 대장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또한 대장암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대장내시경 등 조기 검사를 통한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암의 확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로 암세포를 발견해야 가능하다. 대부분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더라도 5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 진단 후에는 복부와 흉부 CT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CT 검사 결과에서 대장암의 절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로 직장암은 직장 MRI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결과 직장암의 국소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초기암은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암이 대장의 점막하층을 침범했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은 암 발생 부위인 대장 뿐 아니라 암의 이동 경로인 임파절까지 완전 절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수술적 치료는 모두 복강경으로 시행해 상처의 크기도 작아졌고 통증도 많이 감소해 수술 다음 날부터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대장암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로 완

치가 가능하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와 상의 하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률도 낮추고 완치 되는데 도움이 된다.

“30~40대 젊은층 노리는 ‘대장암’..대부분 수술로 완치 가능”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 Kpop MUSIC

**Entering FEE: \$100  
Per Team or  
Participant**

## DANCE CONTEST

**Grand Prize: \$1,000**

**1st Prize: \$500**

**2nd Prize: \$250**

**AUDITION: October 8th, 2023. 3 PM**  
**Location: Korean Church of Boston.**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FINAL: October 14th, 2023**

**@**

**K-Festival/Kimchi Festival**  
**11 AM-3 PM**

**Location: Castle Island**  
**2010 Day BLVD, Boston, MA 02127**

1. Each participant or team will be voted at the Audition
2. 6 teams or contestant will be selected and do the Final stage at K-Festival
3. In the final stage, 50% from the Judge and 50% vote from the Audiences
4. The Grand Prize winner will perform at the Korean Cultural Event on Nov. 4th,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Contact: Young Chang Email: tkdssm7@gmail.com Phone 978.994.0306**  
**Nikkie Park Email: nikkiehpark@gmail.com Phone 617.447.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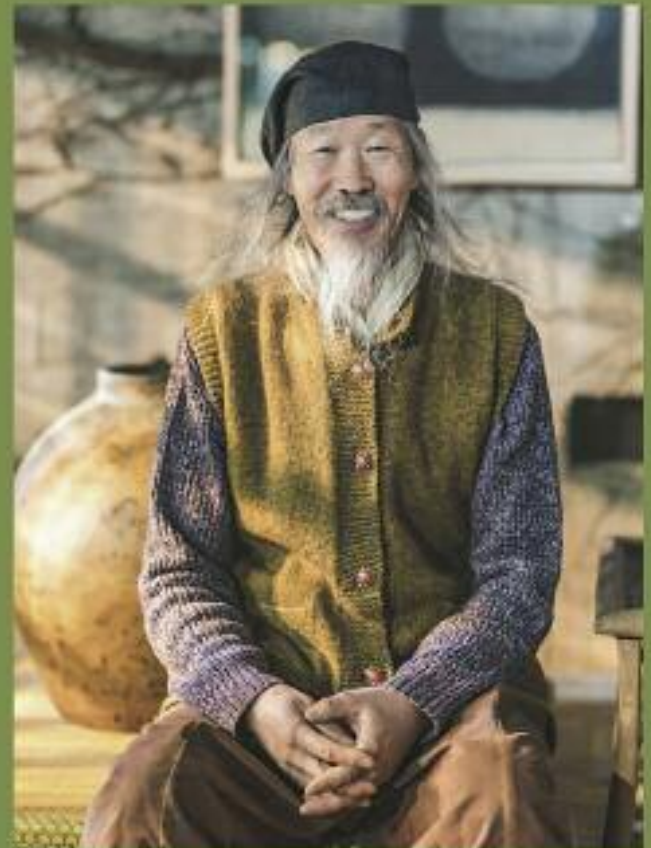
제 10회 한미예술협회 정기전

종이 뜨기  
씨앗 뿌리기  
환경 보살피기



# 한지

이종국 작가  
초대전



10월 7일-22일

Reception:  
Saturday October 7, 3-5pm

Artist Talk:  
Thursday, October 5, 7pm

Lexington Arts and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상세 정보  
[kcsboston.org](http://kcsboston.org)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